

중앙일보 김종필 증언록팀의 취재 파일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 정계에서 현대사의 증인 JP의 역사적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꾸준한 요청과 준비 작업이 있어 왔다. 그러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결코 쓰지 않겠다는 JP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땅한 논리가 마련되고 설득력이 필요했다. JP가 60여년간 도모하고 이루고 겪어 온 정치여정에서 그가 처신한 정치 철학과 국가관과 인생관, 그 속에서 쌓여진 경륜에서 밝혀지는 진실들이 모아지고 기록되어 당대와 후대를 위한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어야 함을 JP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장장 1년여 기간에 걸쳐 인터뷰, 취재, 검증에 참여한 ‘김종필증언록팀’ 기자들이 현장에서 체득(體得)한 소회와 증언록에 못 담은 이야기들을 담는다. (편집자 주)

“JP는 역사다... 살아 숨쉬는 그의 증언과 함께한 14개월 간의 기록”



박보균

중앙일보 부사장, 대기자

JP는 역사다. 김종필(金鍾泌 JP)의 삶은 현대사다

한국 현대사는 격동과 파란이다. 그는 그 시대를 증언했다. 그가 연출한 시대다. 그가 몸담았던 시절이다. 성취와 고뇌, 좌절과 영광의 이야기다. 중앙일보 ‘김종필 증언록’ 팀은 매주 토요일 그를 만났다. 2014년 10월부터 올 11월까지. 그 만남은 역사와의 대면이었다. 첫 회고부터 긴박감이 넘쳤다.

그는 1961년 5·16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5·16 혁명 공약을 내가 만들었지, 제1항을 아는가-.”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義)로 삼는다.’ 우리는 학생처럼 즉답했다. 그는 “사연이 있지”라고 했다. 그는 비록(秘錄)의 문을 열었다. “혁명 전야는 장면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황이었지. 그러나 그 때문에 반공을 앞세운

것은 아니야.” 그의 나이 아흔, 54년 전 일이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해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 초창기(소령)에 좌익으로 몰려 구속, 예편당한 불행한 때가 있었지. 그 때문에 우리 군 상층부, 특히 주한미군은 박 대통령을 의심했어. 1항은 그 의심과 경계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혁명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은 공약을 보고 ‘이거 나 때문에 썼구먼’이라고 했어.”

현대사는 거친 곡절과 절묘한 반전(反轉)이다.

그가 안내한 비사(秘史)의 창고는 그런 사연으로 가득했다. 혁명은 야망과 분출이다. 그 언어는 JP의 생애를 지배한다. 그것은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혁명은 애국심의 발로야-.” 그의 규정은 정치학의 지평을 넓힌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의 공산 혁명도 마찬가지야. 찌든 가난에 외세로 망가진 중국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조국애가 혁명이지.” 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수준. “가난을 숙명처럼 알던 착한 국민을 바라보면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일어섰지.” JP의 육성(肉聲)에 걱정과 도전이 서린다.

거사(舉事)는 소명감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는 “예술가와 혁명가의 기질은 통하지. 공통점은 다정

역사 속에 거짓 신화는 많다.

김형욱은 권력 실세였다. 그는 73년 미국으로 갔다. JP는 “미국은 박 대통령을 견제할 도구로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활용하려 했지. CIA는 김형욱을 신문했지만 정보 가치는 낮았어. 김형욱은 없는 소리, 있는 소리로 픽션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헐뜯었어.” ‘김형욱 회고록’은 박정희 시대 비판의 원전(元典)이다. 국내에서도 무수히 인용됐다. 파생되고 덧붙여졌다. JP는 “그동안 대꾸하지 않았는데 김형욱 회고록은 엉터리투성이야.” 그의 판정 내용은 통렬했다.

JP 증언록은 조작된 신화를 해체한다.

그중에 독도 폭파밀약론도 있다. JP는 수교협상에서 일본 측에 말했다. “독도를 우리가 폭파하면 했지 일본에 줄 수 없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독도를 일본에 줄 수 없음을 강조한 비유였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 JP 반대 세력은 앞뒤를 잘랐다. ‘폭파’만 떼어내 떠들었다. “박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는 발작증 병자였지.” 그는 비분에 찬다. “김재규가 법정에서 민주화 투사처럼 행세했지만, 그는 차지철과의 충성 경쟁에서 패해 발작을 일으켜 충을 썼어.” 민주화 투사 김재규- 그것은 타락한 신화의 기괴함이다. 역사는 기록이다. 진실의 생명력은 증언이다. 우리 팀은 그의 민감한 술회를 검증했다. 증언록의 객관화는 JP의 바람이기도 했다.

JP는 박정희 시대의 2인자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나를 옆에 두면 거북하고 없으면 아쉬운 존재로 여겼지”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권력의 진실에 가까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군으로 복귀하겠라며 허약한 모습을 보였어. 그러다가 권력의 세계를 느끼면서 변해 갔어. 분할통치술을 아시고 활용했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지.”

권력은 냉혹하다. 나눠지 않는다.

김형욱 · 김재규의 중앙정보부는 JP를 견제, 감시한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제가 나세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격해진다. 박 대통령에게 외치는 것 같다. 이집트 혁명 후 나세르는 1인자인 나기브를 제거했다. 그는 “권력은 더러운 것이구나, 환멸을 느낀 적도 있지. 하지만 더러운 게 권력의 특이성이기도 해.”

나는 그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물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박 대통령에 의해 내침을 당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는 묘한 미소로 답변한다. “그러게. 박 대통령이 약한 점이 있어, 순수하다고 할까. 거기에는 조카딸(박영옥 여사)과 나의 결혼이란 인과(因果)도 있지.”

‘종말의 시작이었지-’. 대립된 단어의 배치다.

그의 비감 어린 표현이다.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74년 8월 15일)이 터졌다.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는 물러났다. 박 대통령은 JP에게 후임을 물었다. “5·16 때 해병대를 앞장서서 이끈 오정근을 추천했어. 박 대통령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밤에 주무시면서 생각이 달라지셨어.” 그의 말에 탄식이 묻어났다. “육 여사는 박 대통령에게 차지철을 써보시라고 했어. 차지철은 고지식하고 술 · 담배를 앓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어.” 그런 기억은 독점적이다. JP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나는 권력의 심부(深部)에 들어가 있었다. 그 인사 작품이 육 여사의 유작(遺作)인 셈이라니-. 나는 모르게 한마디했다. “오정근 경호실장이면 비극이 없었을 텐데요.” 그는 넋지시 막는다. “역사에서 이프(if), 이렇게 했다면 하는 진술은 값어치가 없어.” 역사를 만든 거인(巨人)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박정희의 죽음은 권력 공백이다.

JP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하지만 그는 정상에 서지 못했다. 무엇 때문일까. 그의 회한과 자부심 속에 단서가 있었다. 나는 은근히 물었다. “권력은 쟁취한다는데, 권력의지가 약해지셨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JP는 “혁명가

기질이 순치(馴致)됐다는 얘기를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30대 JP는 ‘불꽃’이었다.

세월은 그를 순리와 기다림의 정치인으로 바꿨다. 그 무렵 그의 방에 김옥균의 글씨가 걸렸다. ‘如環之無端’(여환지무단, 반지는 마디가 없다). 갑신정변 실패 후 원만함이다. 그때 권력은 충구에서 나왔다. 그는 전두환 소장의 신군부와 차단됐다. “윤필용 사건 뒤 박 대통령은 내가 친분 있는 군인들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셨어.” JP는 단호해진다.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 페어플레이는 그의 자부심이다.

그의 인물평은 허를 찌르면서 흥미를 더했다.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은 자기가 아니면 해결 못할 일을 꾸며서 존 재감을 과시했지.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했어. 7·4 남북 공동성명, 김대중 납치가 모두 그랬어.” 김형욱으로 옮겨 간다. “그의 저돌성엔 예리한 발톱이 숨겨져 있었고.”

그는 3김 시대의 한 축이다.

“DJP 공조는 해원(解冤)의 차원이었어.” 숙연함이 두드러진 순간이었다. 그의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평은 절묘하다. “DJ는 공산주의를 용인한 용공(容共)이 아니었어. 공산주의를 활용한 용공(用共)이 맞을 것이야.” 그는 “하나회 척결, 전두환·노태우 구속 같은 전광석화의결단은 YS(김영삼 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지”라고 했다.

그의 세계는 다양하고 다층적이다.

어느 틀 속에 가둬 둘 수 없었다. 그는 헤르만헤세의 시를 읽고 바이런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는 나폴레옹을 사랑했다. 10대 시절 배운 워털루 전투의 노래를 부른다. “워털루~워털루~.” 그 장면에서 완전한 노년의 기색은 사라진다. “나폴레옹을 꺾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말했어. 워털루의 승리는 이튼(Eton)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JP는 “한국에 이튼스쿨을 만드는 게 나의 꿈이었지”라고 했다. 그 꿈은 전두환의 신군부가 빼앗아갔다.



▲ 윤정 90세 생신 축하 모임에서 기념 동판을 기증하는 박보군대기자
그가 석파이하웅(대원군)의 난초를 얘기한다. 말 속에 난의 정취가 풍긴다. YS의 언어는 직설과 단선이다. DJ의 말은 논리와 단계다.

JP의 언어는 향기다.

그가 선택한 단어에 기품과 묘미가 있다. 세상은 말로 다스린다. 새 시대엔 새 언어가 필요하다. ‘민족적 민주주의, 조국 근대화, 민족 중흥, 자주와 재건-’. 그는 언어의 조련사다. 중국 문화혁명의 조반유리(造反有理)를 조반역리(逆理)로 바꿨다. 경천동지(驚天動地)를 진천(震天)동지로 뒤틀어 썼다.

그는 상상력의 저수지였다.

“히 이즈 낫 어 빅맨, 밧 어 빅맨(He is not a big man, but a big man)-.” 10·26 그날 밤 박 대통령의 시신과 마주했을 때 그의 상념이다. “박 대통령의 몸을 살폈어. 몸집이 어떻게나 조그마한지,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케네디 연설문 작성자의 말이 떠올랐어. ‘케네디는 자이언트였고 죽어서도 거인이었다’고 했지.”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른다. “박 대통령의 키는 작았지만 역사의 빅맨이었어.” 그의 회고는 살아 숨쉰다.

“인생은 짧다. 시시하게 굴지 말라-.”

19세기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JP의 머릿속에 있는 구절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고 했다는데, 나는 내 무덤을 파헤치라고 하고 싶어”라고 했다. 그의 삶은 장엄했다. 그의 역정은 역사 앞에 당당하다. 그의 아호는 운정(雲庭). 구름 위 뜰이다. 풍운을 잠재우는 아늑함인가. 그는 추상을 싫어했다. “피카소는 나에게 맞지 않아.” 그는 풍광이 강렬한 그림을 그렸다.

그의 서사(敍事)는 힘차고 풍부했다.

두 번의 국무총리, 9선 국회의원, 집권당 대표의 경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회고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이었다. 어떤 물음에도 답변은 모호하지 않았다. 3김 시대는 노욕(老慾), 역사의 퇴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깔끄러운 질문의 응수도 거침없었다. 그리고 증언록에 옮겼다. 그는 자신의 회고가 미화로 변색될까 거북해 했다. 그런 느낌이 들면 경계했다. 그는 증언록 초고를 수정했다.

JP 회고는 ‘대하(大河) 드라마’다.

1년2개월 구술의 대장정은 끝났다. JP와 함께한 현대사 추적은 내게 행운이었다. JP는 매력이다. 그 펼침과 흡입력은 독보적이다.

김종필이 증언록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전 영 기

「김종필증언록팀」팀장 / 논설위원

김종필은 은둔자였다.

쭈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5년 전이었을 것이다. 편집국장이던 나는 남산 산책길에 JP와 함께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았고 나는 휠체어를 밀었다. 옆에는 JP의 세째 형님인 종락(2013년 작고)씨가 같이 걸었다. “총재님, 회

고록을 중앙일보에 쓰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나의 요청에 JP는 “난 회고록 같은 거 안써”라고 답했다. “왜 안쓰니까”라고 되묻자 그는 “쓰면 뭐하나. 읽어줄 사람이 없는데.”라고 말한다. 나는 “읽어줄 사람이 왜 없습니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재차 요구했다. JP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묵연히 앞만 쳐다보았다. 그 해 나와 JP는 그런 문답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 때 어렵פות이 JP의 회고록이 내 뭇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박 대통령 태도의 일단을

권력자의 질투라는 말로 표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4개월간 증언록 취재와 기사를 구성하면서 JP가 5년 전 던졌던 선문답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읽어 줄 사람이 없어서 쓰기 싫었다는 JP의 회고록, JP는 누가 자기의 현대사 증언을 읽어주길 바랐던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니 JP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다 못하게 막았어. 전국 소년스포츠단을 조직하려고 해도 못하게 했고, 음악 영재에게 장학금을 줘 세계무대에서 키우려 해도 중단시켰지. 박 대통령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자주 벌이는 걸 싫어한 거야. 내가 무슨 판 생각을 품고 당신 자리라도 뺏을까봐 걱정했지. 내가 오늘 그런 상념이 일어. 일종의 ‘권력자의 질투’라고 할까.”

2015년 11월 중순, 내가 JP와 일대일로 마지막 인터뷰를 하던 자리. JP는 내가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 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권력자의 질투라는 말로 표현했다.

온갖 의심과 견제 속에서도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었다

1949년 육군본부 문관과 정보국 소위로 처음 만난 박정

희와 김종필은 79년 대통령 서거까지 30년 동안 전쟁, 가족, 혁명, 근대화, 한일협정, 유신, 권력유지에서 서로 인생의 동반자였다. 박정희는 끝없이 2인자를 쳐내면서도 김종필만은 보호했고, 김종필은 온갖 의심과 견제 속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JP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던진 직설인만큼 권력의 질투는 그가 증언록에서 남기고 싶은 얘기였을 것이다.

빵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어 본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선언

JP를 1주일에 1~2회 만난 서울 청구동 자택은 일종의 정치학교, 역사교실이였다. 정치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권력의 이면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스토리가 영화처럼 펼쳐지는 학습장이었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한국의 정신을 공리공론(空理空論)에서 무실역행(務實力行)으로 전환시켰다. 그들은 가치 혁명의 주인공이었다. ‘배고픈 민족에게 자유는 없다’ ‘근대화엔 밀천이 필요하다’는 실무정신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 JP는 평생 가장 보람있는 일로 한일수교 청구권 협상을 들었다. 매국노 비난에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 JP의 “민주주의는 피가 아니라 빵을 먹고 자란다”는 역사를 창조해 나간 사람, 빵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어 본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선언이었다.

“호남의 한을 내가 풀어줘야 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JP의 역사적 위치는 독특하다. 그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중심인물이면서 민주화 시대엔 균형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했다. JP는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을 이뤄 북방외교를 완성시켰다. 그 때 한국 정부는 소련, 중국과 차례로 수교에 성공해 글로벌 강국의 기초를 닦았다. JP는 3당 합당 세력 가운데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 당선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YS는 보수 정치세력인 JP의 정치적 조력 위에서 군부 하나회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제거할 수 있었다. 민주화 무대는 JP가 김대중의 손을 잡아

DJP공동정권을 탄생시켜 절정에 올랐다. JP는 YS와 DJ를 도운 것에 대해 “후회없다.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해받은 빛을 내가 갚아준 것이다. 호남의 한을 내가 풀어줘야 했다”고 말한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해원(解冤)과 화해, 상생은 JP라는 특별한 인격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 진행됐던 현대사의 드라마였다. JP는 박정희와는 혁명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과는 정치를 했다.

“총재님의 회고록을 읽어줄 국민은 많습니다”

JP가 자기 시대 속에서 엮어낸 큰 혁명, 큰 정치를 오늘날에도 보고 싶다. 중앙일보에 회고록 연재가 마무리될 무렵 서울 반포에 사는 고교 3학년 학생의 손편지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종필 선생님 같은 위인이 한국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함축과 여백을 강조한 문장론과 청소년 시절 독서를 하면서 ‘일야일권 독파주의(一夜一券獨破主義)’를 실천한 것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JP에게 전달하면서 “총재님의 회고록을 읽어줄 국민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삶의 지혜와 의지의 초인 관전자가 아닌 주도자



최 준 호

「김종필증언록팀」 차장

김종필 증언록 취재과정은 ‘초인(超人)’이 겪은 의지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JP는 한국 현대사의 증언자라는 말로 부족하다. 역사의 고비마다 관전자(觀戰者)가 아닌 주도자(主導者)로서 새로운 역사를 한 페이지씩 써 나간 인물이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20살에 해방을

맞은 건 그 시대 사람 누구나 경험한 것이라 치자. 하지만 이후 6.25전쟁과 5.16, 박정희 정권 18년에서부터 노무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그는 군인과 중앙정보부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당총재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돌려왔다.

북한군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

그는 요즘 대학생 나이에 불과한 24살에 육군본부 정보국의 북한반장(중위)으로 6.25를 눈앞에서 맞았다. 6.25가 발발하기 전 상부에 북한군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는 좌절도 경험했다. 전쟁 발발 사흘 뒤 서울에서 퇴각하면서 한강인도교를 건너다 다리가 폭파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는 “피묻은 살점과 옷가지가 눈앞에 툭툭 떨어졌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30대 중반엔 현역 중령 신분으로 정군(整軍) 운동을 주도했다. 국가반란음모죄로 체포돼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군 지도부 개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송요찬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JP는 감옥을 나와서도 계속 정군운동을 펼치다 강제퇴역 당했다. 하지만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번엔 ‘혁명’의 길로 나아갔다. 1961년 그가 주도한 5.16은 실패하면 역적(逆賊)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말 속에 좌절하는 지금 20~30대 청년들에게 청년JP는 어떻게 비칠까 궁금하다.

낮은 포복으로 조금씩 적진을 향해

다가가는 전사(戰士)의 모습

사실 기자에게 JP 삶의 대부분은 JP나 주변 인물, 자료 등을 통해서 접한 간접 경험이다. 하지만 2015년 여름 경기도 고양의 한 골프장에서 초인 JP의 진면목을 제대로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장애인용 특수 골프카트에 몸을 의지해 필드로 나섰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평생 좋아하던

골프를 그만둔 뒤 7년 만에, 90의 나이에 찾은 골프장이었다. 알려진대로 그는 2008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오른손과 오른발을 쓰지 못한다. 때문에 특수카트에 의지해 몸을 일으킨 뒤 오직 성한 왼손만으로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공은 잘해야 30~40m 앞에 떨어졌다. JP는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40번 공을 친 뒤 30~40m 앞에 나가서 다시 40번의 공을 치는 방식으로 그린까지 전진했다. 상의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전에 올라가기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가끔 힘들 때마다 ‘휴~’하고 숨을 내뿜는 것이 전부였다. 마치 낮은 포복으로 조금씩 적진을 향해 다가가는 전사(戰士)의 모습이였다. 반신불수(半身不隨) 구순 노인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커 보였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스텔론이 주연한 그 ‘람보’다

또 다른 기억 하나. 가을의 어느 토요일 오후 JP는 다소 피곤해했다. 연유를 물으니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어제 문예춘추(일본 월간지) 신간이 와서 그거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잡지였다. 그는 요즘도 새벽 3시쯤 일어나서 한바탕 책을 읽고 다시 잠이 든다고 한다.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날은 아무 것도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JP의 말이다. 독서를 하겠다며 같은 책을 일주일째 가지고 다니기 일쑤인 기자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영똥한 퀴즈 하나. 람보는 왜 총알이 피해갈까. 흔히 말하는 답은 “영화이니까”이다. 기자는 지난 1년간 매주 JP와 만남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았다. 사실 당연한 얘기다. 전쟁터에는 수많은 ‘람보’가 있었다. 그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실버스타 스틸론이 주연한 그 람보다. 최후까지 생존한 람보의 얘기를 처음부터 풀어가니 당연히 총알이 피해갈 수밖에 없다. 1949년 5월 임관한 JP의 육사 8기 동기는 1263명이다. 이중 3분의 1이 6.25 참전 중생을 달리했다. 60여 년 뒤인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8기생은 100명 남짓. 이중 거동이 가능한 분이 20~30명 정

도라고 한다. JP는 한국 현대사의 고비들을 경험한 수많은 랍보 중 드물게 남은 생존자다. 모든 삶은 위대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초인 JP에게서 삶의 지혜와 의지를 배운다.

그는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거인



전승우

「김종필증언록팀」 차장

김종필 회고록? 평소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서적들을 제법 접했다고 생각했지만 '윤정 김종필'에 대한 단상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5.16혁명의 실질적인 리더, 음악 미술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르네상스형 인간'. 2인자로 오래 군림(?)했지만 부정축재하지 않은 정치인 등등...

박정희 대통령과 윤정은 '근대화 콤비'

'김종필 증언록' 전담 편집을 맡으라는 박보균 중앙일보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건 2014년 11월말이었다. "연재는 2015년 2월부터, 네가 사진을 전담해라" 박 부사장의 특명이 떨어졌다. 다행히도 청구동에서 2015년 5.16 혁명 즈음에 '윤정 화보집'을 출간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특보님들의 도움을 적지 아니 받을 수 있었다. 청구동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2월말까지 확보한 사진은 총 620여장. 김상윤, 정원조 특보님과 함께 청구동 지하 도서관(?)에 보관된 윤정의 사진첩들에서 얻어낸 결과물들이었

다. 중앙일보 DB에 보관돼있던 사진은 200여 장 정도. '1년 정도 연재 예정이니 하루 3장씩 써도 충분하겠지' 연재를 코앞에 두고도 걱정보다는 느긋한 마음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 연재 첫날부터 그런 느긋한 마음은 너무나도 큰 오판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 사진, 쓴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좀 더 임팩트 있는 사진은 없나?" 박보균 부사장과 종합편집 부국장의 질책에 가까운 의견이 쏟아졌다. "이 사진은 신문에 처음 소개되는 겁니다" "사진 상태는 별로지만 희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간부들을 설득하면서 근근히 증언록 편집을 이어가기 2주일.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이 쏟아졌고 업무에 대한 중압감은 그에 비례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일과 시간은 물론 근무를 마치고도 책상에 앉아 사진 검색을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윤정은 '근대화 콤비'라는 사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면에 등장하는 날이 다반사였고 그와 김 전 총리가 함께 있는 사진을 실었을때 독자들의 반응 또한 열광에 가까웠지만 회고록 편집 초년생의 경험 부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월척을 낚아

3월말 늦은 저녁, 예의 회고록 편집을 마치고 사진 검색을 하고 있을 때, 경제편집 부장 안충기 데스크의 복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국가기록원 원장이 내 친구인데 그쪽에 연통을 넣을 터이니 상의해 보면 좋을 거야". 바로 다음날 국가기록원에서 담당자(이한희 연구사)를 붙여 줄 터이니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국가기록원? 여지껏 살면서 전혀 몰랐던 미지의 땅이 었지만 마치 오래 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다. JP의 전역식 날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 김재규의 어깨를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두드리는 김 전 총리의 집무실 풍경,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희귀한 사진

(1955년 6군단 방문 때) 이병철 전 삼성회장과 함께한 김종필 총리의 청와대 접견 사진 등등. 기사 특종에 버금가는 '사진 특종'을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월척을 낚듯이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사진에 대한 갈증과 퀄리티에 대한 집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수시로 청구동 자택을 찾아 지하 도서관에 사진첩을 뒤져보기도 하고 특보님들을 줄라 연재 당일 날 급하게 사진 마감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장장 11개월에 걸친 '김종필 증언록'의 대장정은 지난 12월 초에 마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찌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지 아찔한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거의 매번 급하게 연락을 드려도 늘 미소로 맞아주시는 김 상윤 특보님, 연재 시작 전 사진 정리를 함께 해주신 정원 조 특보님, 원고 감수하느라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 덕주 특보님... 이분 들 모두가 증언록 편집을 도와주시는 '큰 어른'들이다. 그리고 언제나 "2% 더"를 강조하면서 완 벽한 일처리를 채찍해 주신 박보균 부사장 또한 증언록 편집의 은인이다.

1차 화보집에서 소개 못한 그의 정치와 편린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개되었으면...

1년 여 가까이 '인간 김종필'의 사진을 찾으면서 느낀 가장 큰 감상은 그는 진정한 '거인'이라는 것이다. 정치, 외교, 국방, 예술, 문화 등 어느 한 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그의 족적은 그의 90여년 삶이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발자취임을 알 수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기지 못한 현장이나 분야의 사진을 윤정 김종필은 남겼으니 말이다. 신문 지면이나 1차 화보집에서 소개 못한 그의 정치와 인생 편린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개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 후원회 계좌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윤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윤정재단

한국의 2인자에게 기자로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한 짜릿함



한애란

「김조필즈어로팀」 기자

매력적인 인물 JP

“앞으로 너는 김종필이 되는 거야. 서른다섯에 5·16을 일으키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JP 말이다.”

2014년 9월 말 김종필증언록팀으로 인사발령이 난 바로 그날, 전영기 팀장은 내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한 듯했다. ‘JP가 뭘 했다고요? 중정부장이요?’ 이렇게 되물으려다가 참았다.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JP란 미지의 영역에 불쑥 들어서게 됐다.

2015년 12월 초까지 꼬박 14개월 간 JP를 취재했다. 인터뷰는 매주 토요일 오후였다. 신문쟁이의 공식 휴무일인 토요일을 잃었다. 그래도 나는 51회에 걸친 인터뷰가 즐거웠다. 현대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자부심, 기자로서 역사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짜릿함. 이런 거창한 이유를 들고 싶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JP가 매력적인 인물 이어서였다.

대중 속에서 이야기 하면 심금 올리는 JP

JP는 말을 잘한다. 단순히 입담이 좋은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윈스턴 처칠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에도 물 흐르듯 답을 내놓는다. 독서량이 엄청나다는 건 알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바이런과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일본어로 줄줄 외우는 모습엔 감탄하게 된다. 그가 가끔씩 던지는 현실 정치에 대한 지적은 문물을 치게 할 때가 많다. 대화가 지루할 틈이 없

다. 한때 JP 사람이었지만 3선 개헌으로 결별한 예춘호 전 의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JP는 말을 참 잘해. DJ가 연설을 잘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안 돼. JP가 대중 속에서 이야기 하면 심금을 울려.”

“나는 이중이 아니라 사중(四重)이야!”

JP는 유머가 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남을 웃게 하는 식의 유머다.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JP에게 “총재님도 이중적이십니까?”라고 기습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받아친다. “나는 이중이 아니라 사중이야! 놀랐지?” 좌중이 와하고 웃자 그는 혀를 쏙 내밀어 ‘메롱’을 한다. 또 어느 날은 기자가 “참 다재다능하십니다”라고 하자 그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라고 묻더니 자답한다. “바로 잡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모두 웃는다.

그의 유머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개인적으로 증언록 중 JP가 가장 빛났던 장면을 꼽자면 로버트 케네디와의 첫 만남(1962년)이다. 미국의 실세 로버트 케네디가 거만하게 앉아서 내려다보자 JP는 보란듯이 댕다 소파에 드러누워 버렸다.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에서 왔어도 손님인데.” 그때를 회고하는 JP의 얼굴에서 60년대 초반 지냈을 당당함과 배짱이 되살아난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며 캠퍼스로 찾아가 토론을 벌인 열정(64년) 역시 젊은 시절 JP

답다. 주한미국대사 새무엘 버거가 63년 본국에 보낸 JP 관련 전문엔 이런 문구가 있다. ‘김종필 특유의 지나친 자신만만함과 감성적인 성격’. 미국이 경제할만큼 자신만만했던 한국의 2인자는 JP뿐이었을 것이다.

시종일관 권력과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

9개월 간 신문에 연재된 증언록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찬사와 응원도 많았지만 일부에선 너무 자화자찬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 면이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화자찬 속에 담겼던 이 메시지가 읽어들었다. ‘그런데 남은 게 없어.’ 90의 JP는 시종일관 권력과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했나, 허튼 심부름이나 하다가 끝나지 않았나. 그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허사로구나 할 뿐이야.” 다른 사람이 아닌 JP의 말하기에 더 진하게 와 닿았다.

JP와의 긴 여정이 끝났음이 이제야 실감난다. 그간 ‘JP가 되는’ 경지에 이르진 못했겠지만 JP의 마음속에 몇 번 씹살짝 들어갔다 나온 듯하다. 내 또래 기자로선 흔치 않은, 아마도 유일한 경험을 했다. 엄청난 자산을 쌓은 기분이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후배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올지 모른다. “야야, JP는 서른다섯에 중정부장을 하고 마흔다섯에 첫번째 총리직에 올랐단다. 그런데 너, JP가 누군지는 아니?”



김종필 전 총리 자택에서 기념촬영을 한 JP와 중앙일보 '증언록팀'. 뒷줄 왼쪽부터 한애란 기자, 전영기 논설위원, 박보균 대기자, 최준호 기자